



생산자단체의 기능과 역할

황 민 영

(농축수산물유통정보 편집국장)

◇…본고는 지난 6월 1일 서울 반도유스호텔에서 열린 본회 「양돈산업위기대처를 위한 연수 및 대책회의」에서 행한 특별강연 요지임을 밝힙니다.<편집자 주>…◇



오늘 우리들은 대내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미국 등 선진 공업국가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무차별적 수입개방확대 압력이고, 그 둘째가 상업농하의 농업, 농민에 대한 도시자본, 상인자본의 농업지배의 심화입니다.

국제화·개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수입개방의 폭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수입개방이 몰고 올 국내 농업·농민의 파국을 예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활, 생존권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수입개방 확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당국자, 일부 학자, 그리고 정치인, 더욱이는 수입개방의 불가피

성의 선전에 따른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이에 대한 심각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생산자인 농민들과 연대하여 수입개방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소비자, 국민들의 타산적 이해, 또는 무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생각되는 것은,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을 주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개방을 강요하는 미국도 미웁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교우위니 국제경쟁력이니 하면서 수입개방의 불가피성을 강변하고, 농업·농민을 경시, 매도를 서슴치 않는다면 이러저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책임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 기술, 첨단산업이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업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 민족마다 자연적 제약을 받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남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농업구조의 영세성입니다. 더욱이 생각해야 할 것은 영세한 규모에서나마 자본, 기술, 노동집약적인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투자가 그만큼 크게 소홀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2000년대 농업전망에서 현재 전체 인구에서 농업인구가 10% 내외로 감소된다고 하더라도 농

가 호당 평균 경지 규모는 1.3ha에서 1.67ha로 증가할 뿐이고, 전업농일지라도 2.7ha에 불과할 것이란 점을 보더라도 규모확대를 통해 비교열위를 극복하고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국토가 온통 투기장화 되어 있는 조건에서 농업구조 개선의 기본인 토지문제의 해결은 난제일 수 밖에 없습니다.

농업문제의 기본인 토지문제에 대한 원칙하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조건하에서 농업·농민문제의 미래 지향적 해결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정부가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25년 경제개발계획기간에 연평균 전체 예산의 7~9% 선에서 맴돌았을 뿐입니다. 그런 조건에서도 GNP에서 농업 기여율은 87년만 보더라도 11.6%에 달했음을 상기할 때 농업부문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는 살 수 없는 나라마다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농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농업의 GDP기여도가 2.1%이나 농업관련산업을 포함한 기여도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도 농업의 사회적 기여도는 연간 204조원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은 기본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선진경제국들은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우리는 농업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농업의 급속한 진전으로 미처 대응력을 갖추지 못한 농민들은 모든 면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습니다. 생산면에서 불리한 조건인데 교환과정, 가격기구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영세한 농민, 양돈가들이 생산에 있어서 개별, 분산적으로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통과정에서는 더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양축가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농업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중요 요소인 경지 정리율이 논만도 73% 수준에 불과할 뿐이고, 수리안전답율은 비슷한 수준, 이 점은 논·밭을 합한 수리안전율이 37%에 불과한 수준에서 어찌 토지규모, 유리한 영농자금, 높은 기술, 선진화된 기계화, 시장조건 등 유리한 조건의 미국·EC·호주·뉴질랜드·일본 등의 나라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가격지지를 위한 농업보조금에 있어서도 미국 26%, EC 30%, 일본 33%인데 반해, 우리는 12%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들 나라가 농업인구가 많아서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농업이 갖는 생산, 국토, 환경보전, 국가·국민생활에 끼치는 유·무형의 기여도가 높기 때문이며, 이런 요소들은 돈만으로

육 상인자본에게 내 맡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 상인, 독점자본가들은 돈만 많은게 아니라 돈이 지배하는 정보, 기술, 기동성, 심지어는 권력, 정치까지도 그들 손아귀에 장악함으로써 조직되지 않는 영세한 양돈인들은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일찍 발달한 나라, 비교적 생산구조가 영세한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영국, 불란서, 이웃 일본, 그리고 대만 등도 생산자 조직, 협동조합이 발달하게 된 것도 이러한 불리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협동조합은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협동조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양축가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러나 오늘날 협동조합은 신용사업, 구매사업, 정부 정책 대항사업에 역점을 뒀 왔고 생산, 유통, 가공부문의 협동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인 양축가 입장에서의 농정활동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협동조합운동의 기본은 민주적관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말해주듯, 협동조합의 비민주성으로 인하여 자조·자립·협동의 정신이 발현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는 주기적 현상으로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또는 막연한 기대를 해서도 안됩니다.

여러분 양돈인들은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욱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협회의 목적에 적시한 생산성 향상, 유통개선, 소비확대,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협회, 협동조합으로 철통같이 단결해야 합니다. 돼지를 많이 키우고 좋은 돼지고기를

양돈 농가들은 수입개방 자유화 품목에서 돼지고기가 제외됐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운명체, 연대의식을 가지고 전농민이 연대하여 투쟁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양돈분야만 하더라도 국제경쟁력이 가능한 품목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순전히 양돈인들의 피와 땀의 결집인 것입니다.

그동안 양돈인들은 주기적, 불규칙적으로 엄습해 오던 가격파동에서 끊임없는 불굴의 투쟁이 오늘 이 정도의 성과를 거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의 뒤안길에는 이우하여 고락을 같이하던 수많은 양돈인들의 몰락이 있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양돈인들의 권익대변기구인 대한양돈협회의 커다란 역할에 대하여 새삼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생산성 향상·양돈산업의 유통개선·소비확대를 도모하고 양돈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대한양돈협회는 우리나라 생산자 조직의 선구적 사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개인의 권익이 보호받기는 대단히 어려운 노릇입니다. 조직된 개인, 인격, 권익만이 보호받을 수 있고 신장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양돈현실을 지금까지 있었던 일상적,

생산하는 것도 돼지생산의 주체는 양돈인입니다.

지금까지 양돈산업은 소득향상, 육질개선, 소비홍보, 육가공, 그리고 수출 등에 힘입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타 축산부문에 비해서 「가능성」 있는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값싼 수입쇠고기의 수입, 돼지가공품의 수입, 가공업자들은 원료육 수입을 주장하고 있는가 하면 뒷편에서는 가공품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조건, 더욱이 인건비, 기자재, 사료값, 폐수처리 등 비용상승, 규제강화가 심화되면 현재와 같은 양돈조건으로는 설자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양돈인 여러분들의 생존권의 문제요,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양돈농가들은 수입개방 자유화 품목에서 돼지고기가 제외됐다고 해서 안이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돼지고기의 수입개방문제는 시간문제이고 선후의 문제일뿐 양돈만이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전축산분야, 농업분야가 어려워지면 양돈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공동운명체, 연대의식을 가지고 전농민이 연대하여 투쟁해 나가야만 합니다.

쇠고기 수입도 한우값에 영향을 미치지 보다 오히려 대체성이 강한 돼지고기, 닭고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돈인에게 이보다 본질적

이고 시급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축산, 축산인들의 문제인 오늘의 축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축인의 최대 조직인 축협이 전면에서 나서 적극 투쟁해 나가야 할 것이나,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양돈인 여러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축협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같은 양돈인들의 조직인 양돈협회의 역할과 사명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양돈인들의 권익을 대변해 나가는 투쟁을 전개할 수 없습니다. 회원배가, 조직확대를 전개하는 일이 조직강화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양돈협회는 튼튼한 조직기반이 있기 때문에 조직세만 붙으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 회비를 내야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비, 돈 안내고 자신의 권리는 주장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돈이듯이 돈을 내든지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무임승차는 옳지 않습니다.

**농촌·농업·농민에 대한 발상의 오류로 인하여
오늘 농업·농민의 파멸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민의 자존심은 농업의 자신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존심을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결국 협동, 조직적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키워 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실천해야 할 사업대강으로·양돈경영안정추진·종돈개량·유통정보사업 그리고 유통개선을 위한 도매시장개설 운영, 자조금제도 창설, 사료·축산기자재의 부가세 면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의 실현도 양돈인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협회의 강화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각종 양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 법령, 정책 등의 개폐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누가 할 것입니까? 전문조직인 협회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양돈인들의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사안별로는 전농민적 연대, 소비자까지도 연대하여 관료들의 병폐, 독점자본의 폐해를 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협회의 회원이 5천여명에 불과한데, 이 숫자는 양돈농가 24만호의 2%내외이고 50두에서 5백두까지 규모의 양돈농가 1만5천5백호의 33%내외일 뿐이고, 50두에서 1천두까지 규모 양돈농가만도 정확히 1만6천2백68호인데, 5천여명의 회원으로 전

이제 양돈협회는 정책개발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도 고급인력을 적극 수용하여 대정부, 대의회, 대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로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중앙, 서울 중심의 활동강화와 함께 지방화 시대, 하부조직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기초조직이 튼튼해야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오늘날처럼 자존심이 요구되는 시기가 없을 것입니다. 농촌·농업·농민에 대한 발상의 오류로 인하여 오늘 농업·농민의 파멸이 우려되기 때문에 농민의 자존심은 농업의 자신입니다. 그러나 누가 자존심을 찾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구해야 합니다. 자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협동, 조직적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키워 나가야 합니다.

전 양돈인의 단결된 힘이 아니라 농업·농민문제 해결의 귀중한 원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주인인 양돈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